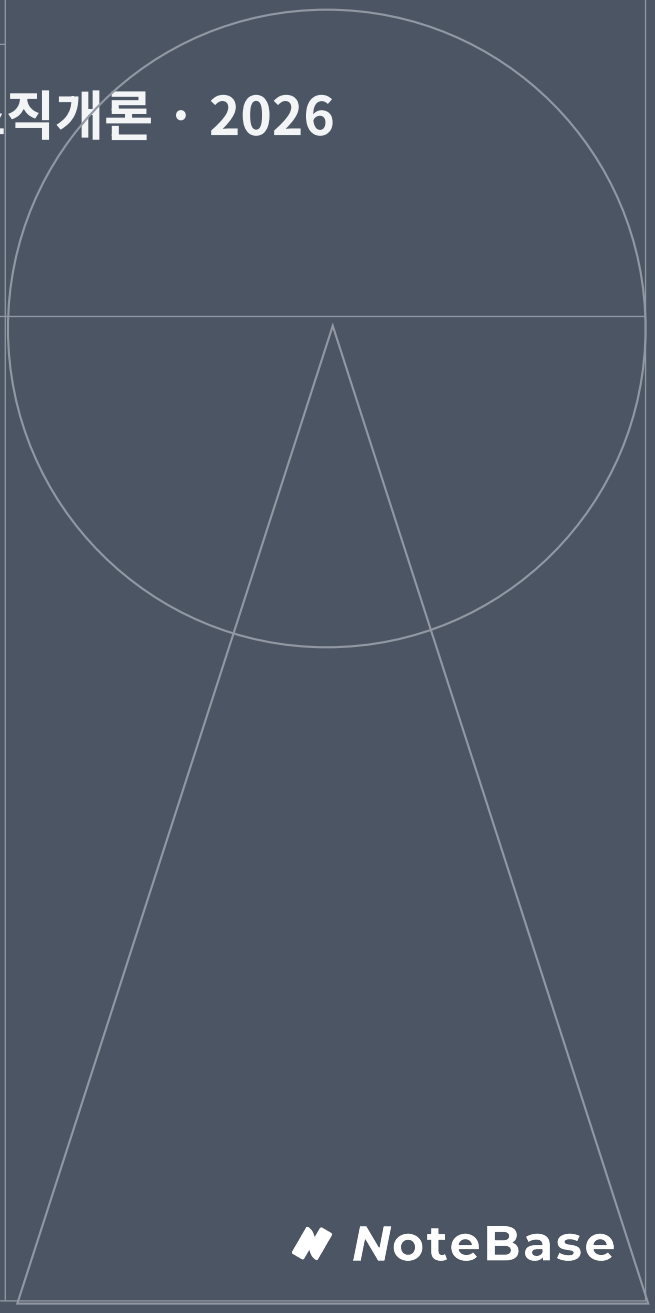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자료조직개론 · 2026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자료조직개론 · 2026

공무원/지방직/9급 · 자료조직개론 · 2026

문 1. 분류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류는 그 목적이나 성격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분류지는 피분류체의 외연 전체를 망라해야 한다.

③ 분류지는 서로 중첩되지 않고 상호 배타적이어야 한다.

④ 분류는 최상의 종개념에서 최하의 유개념까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는 유개념과 종개념의 위치를 뒤바꾸었다. 분류는 범위가 넓은 **최상의 유개념에서 최하의 종개념으로** 중간 단계를 거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분류는 대상을 체계적으로 나누어 이용하려는 목적에 맞아야 한다. 따라서 **분류의 목적과 대상의 성격**에 적합한 기준을 선택해야 한다. 같은 책이라도 주제별로 나눌지, 형태별로 나눌지는 분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② O: 피분류체는 분류하려는 전체 대상이고, 분류지는 이를 나누어 얻은 하위 부류이다. 외연은 그 개념에 속하는 대상의 범위를 뜻한다. 분류지들을 모두 합하면 **피분류체의 외연 전체**가 되어야 하며, 어느 분류지에도 속하지 못하는 대상이 남아서는 안 된다.

③ O: 한 단계에서 나란히 구분된 분류지들은 **서로 중첩되지 않아야 한다**. 하나의 대상이 같은 단계의 둘 이상의 분류지에 동시에 속하면 상호 배타성이 충족되지 않는다. 이는 상위 부류가 하위 부류를 포함하는 계층 관계와는 구별된다.

④ X: 유개념은 다른 개념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고, 종개념은 그 안에 포함되는 하위 개념이다. 따라서 '최상의 종개념에서 최하의 유개념까지'를 **'최상의 유개념에서 최하의 종개념까지'**로 고쳐야 한다. 예를 들어 동물에서 포유류로, 포유류에서 고래로 범위를 좁히듯이, 넓은 개념에서 좁은 개념으로 중간 계층을 건너뛰지 않고 점진적으로 구분한다.

NoteBase

문 2. 십진분류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호 구성이 단순하고 조기성이 풍부하다.

② 비십진분류표에 비해 전개 능력이 우수하다.

③ 분류기호로 주제 간의 상하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④ 새로운 항목을 적절한 위치에 삽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주제배열에서 논리적 체계성이 떨어진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십진분류표는 각 단계의 구분을 0~9의 숫자에 맞추므로 **같은 계층에서 항목을 늘리는 데 제약**이 있다. 기호 뒤에 숫자를 덧붙여 세분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 비십진분류표보다 전개 능력이 우수하다고 할 수는 없다.

선지별 해설

① O: 십진분류표는 기본적으로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므로 기호 구성이 단순하다. 또한 같은 의미나 구분에 일정한 기호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조기성이 있어 **기호의 의미를 기억하고 연상하기 쉽다**.

② X: 십진분류표는 각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숫자가 0~9로 제한된다. 기호 뒤에 숫자를 덧붙여 하위 주제를 계속 세분할 수는 있지만, **같은 계층의 항목을 자유롭게 늘리기는 어렵다**. 따라서 '비십진분류표에 비해 전개 능력이 우수하다'는 표현은 '십진식 구분의 제약으로 전개 능력에 한계가 있다'로 고쳐야 한다.

③ O: 십진분류표는 상위 주제의 기호를 바탕으로 하위 주제의 기호를 구성하여 **주제의 계층관계를 기호에 반영**한다. 예를 들어 듀이십진분류법의 500은 자연과학, 510은 그 아래의 수학을 나타낸다. 이처럼 기호의 공통 부분과 세분되는 자리를 보면 주제 간의 상하관계를 파악하기 쉽다.

④ O: 기존 기호 배정과 십진식 구분을 유지하다 보면 **새 주제를 논리적으로 알맞은 위치에 넣을 여지**가 부족할 수 있다. 그 결과 주제의 실제 관계와 분류기호의 배열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 주제배열의 논리적 체계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긴다.

NoteBase

문 3. 분류법의 주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콜론분류법(CC)은 기본주제를 자연과학, 인문과학, 사회과학 순으로 배열하였다.

② 전개분류법(EC)은 콩트(Comte)의 지식 분류에 영향을 받아 주제를 사물의 진화 순으로 배열하였다.

③ 미국의회도서관분류법(LCC)의 주류는 알파벳 대문자 한 문자로 표시하는데, I, O, W, X, Y를 공기호로 남겨 두었다.

④ 국제십진분류법(UDC)의 주류는 DDC와 유사한데, 언어와 문학을 통합하고 주류기호 '8'을 공기호로 남겨 두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UDC는 언어와 문학을 **'8'에 통합**하고, 주류기호 **'4'를 공기호**로 남겨 두었다. 따라서 '8을 공기호로 남겨 두었다'는 부분을 '4를 공기호로 남겨 두었다'로 고쳐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콜론분류법(CC)은 기본주제를 크게 **자연과학 → 인문과학 → 사회과학** 순으로 배열한다.
수학·물리학·생물학 등 자연과학 계열이 앞서고, 예술·문학·언어·철학 등 인문과학 계열을 거쳐 교육·정치·경제·사회·법률 등 사회과학 계열로 이어진다.

② O: 커터의 전개분류법(EC)은 콩트의 지식 분류에 영향을 받아 **진화적 순서**를 배열 원리로 삼았다. 자연과학 분야에서 물질을 다루는 주제에서 생명을 다루는 주제로, 생물 분야에서는 식물에서 동물로 나아가는 식으로 주제를 배열한다.

③ O: 미국의회도서관분류법(LCC)은 주류를 **알파벳 대문자 한 문자**로 표시하며, I·O·W·X·Y는 주류기호로 사용하지 않는다. 여기서 공기호란 주류가 배정되지 않은 기호를 뜻한다. 주류 아래의 하위 구분에서는 두 문자 이상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주류의 한 문자 표기와 세부 분류기호를 구별해야 한다.

④ X: 국제십진분류법(UDC)은 DDC의 십진식 체계를 바탕으로 하지만, 언어와 문학을 주류 **'8'에 통합하고 '4'를 공기호**로 남겨 두었다. DDC에서는 언어가 400, 문학이 800으로 나뉘지만 UDC에서는 두 분야가 8에 함께 속한다. 따라서 선지의 '주류기호 8을 공기호로 남겨 두었다'는 '주류기호 4를 공기호로 남겨 두었다'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4. KDC 제6판의 주류와 그 하위 주제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총류(000) - 일반 연설문집

② 철학(100) - 직업윤리

③ 사회과학(300) - 발달심리학

④ 기술과학(500) - 육아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발달심리학은 사회과학(300)이 아니라 **철학(100)의 심리학(180)**에 속한다. 인간의 성장에 따른 심리적 변화를 다루며, 분류기호는 183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일반 연설문집은 특정 주제에 한정되지 않은 연설문을 모은 자료로, 총류(000)의 **강연집·수필집·연설문집(040)**에 속한다.

② O: 직업윤리는 직업 활동에서 지켜야 할 도덕적 기준을 다룬다. 철학(100)의 **윤리학·도덕철학(190)**에 속하며, 직업윤리 일반의 분류기호는 195이다.

③ X: 발달심리학은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따른 심리적 변화를 연구하는 심리학의 한 분야이다. KDC 제6판에서는 **철학(100) → 심리학(180) → 발달심리학(183)**으로 분류하므로, '사회과학(300)'을 '철학(100)'으로 고쳐야 한다.

④ O: 육아는 아이를 돌보고 기르는 생활상의 지식과 방법을 다룬다. 기술과학(500)의 **생활과학(590)**에 속하며, 육아의 분류기호는 598이다.

NoteBase

문 5. DDC 제23판의 Table 1을 적용하여 분류한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영문법 - 425
ㄴ. 교육이론 - 370.1
ㄷ. 예술인협회 - 700.6
ㄹ. 세계문학전집 - 808.8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교육이론의 370.1에는 Table 1의 **－01 '철학 및 이론'**이, 예술인협회의 700.6에는 **－06 '단체 및 경영'**이 적용되어 있다. 문법을 나타내는 언어 세목이나 본표에 마련된 문학작품집 번호와 구별한다.

보기별 해설

이 문항에서는 각 분류번호에 Table 1의 표준구분이 적용되었는지를 판단한다. 표준구분은 주제 번호에 철학·이론, 단체 등 공통으로 쓰이는 세목을 붙여 자료를 세분하는 방식이다.

ㄱ. X: 영문법의 425는 영어의 기본기호 42에 **Table 4의 －5 '문법'**을 결합한 번호이다. Table 4는 개별 언어와 어족을 세분하는 보조표이므로, 이를 Table 1 적용 사례로 볼 수 없다.

ㄴ. O: 교육이론의 370.1은 교육 370에 Table 1의 **－01 '철학 및 이론'**을 적용한 번호이다. 교육이라는 주제를 이론적으로 다룬다는 접근 방식을 표준구분으로 나타낸다.

ㄷ. O: 예술인협회의 700.6은 예술 700에 Table 1의 **－06 '단체 및 경영'**을 적용한 번호이다. 협회는 해당 주제 분야의 단체이므로 이 표준구분에 해당한다.

ㄹ. X: 세계문학전집의 808.8은 **본표에 마련된 문학작품집 번호**이다. 이 번호의 '.8'은 Table 1의 표준구분을 덧붙인 것이 아니다. DDC 제23판에서 Table 1의 －08은 '사람 집단'을 나타내므로, '전집'이라는 이유로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Table 1을 적용한 사례는 ㄴ과 ㄷ이며, 이 조합은 ③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6. 목록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KCR 제4판은 통일표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AACR2는 북미판과 영국판으로 각각 출간되었다.

③ 고재창의 『한은도서편목법』은 저자명 기본기입 원칙을 채택하였다.

④ 제위트(Jewett)의 목록규칙은 미국 내 도서관들이 공통된 규칙에 따라 종합목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북미판과 영국판으로 각각 출간된 것은 **AACR 초판**이다. AACR2는 두 판의 차이를 조정하여 1978년에 **하나의 통합판**으로 출간되었다.

선지별 해설

① O: 통일표목은 같은 사람이나 저작 등이 서로 다른 이름이나 표제로 나타날 때 이를 한곳에 모을 수 있도록 선정한 통일된 표목이다. KCR 제4판은 **통일표목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표목과 표목의 형식에 관한 규정도 제외하였다. 이는 전거통제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뜻과는 구별해야 한다.

② X: 북미판과 영국판으로 나뉘어 출간된 것은 1967년의 **AACR 초판**이다. 1978년의 AACR2는 두 판의 차이를 조정하여 하나로 통합한 제2판이므로, '각각 출간되었다'를 **'하나의 통합판으로 출간되었다'**로 고쳐야 한다.

③ O: 고재창의 『한은도서편목법』은 **저자명 기본기입 원칙**을 채택하였다. 이는 저자명을 기본표목으로 삼아 목록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책의 이름을 기본으로 삼는 서명 기본기입 방식과 구별된다.

④ O: 제위트는 미국 여러 도서관의 소장자료를 함께 파악할 수 있는 **종합목록**을 구상하였다. 각 도서관의 목록을 하나로 합치려면 자료의 기술과 표목 작성 방식이 일관되어야 하므로, 공통으로 적용할 목록규칙을 개발하였다.

NoteBase

문 7. KORMARC 형식(전거통제용, 2023)에 따라 전거레코드를 작성할 때, (가) ~ (다)의 표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시기호는? (단, 지시기호, 띄어쓰기, 줄바꿈은 고려하지 않음)

(가) ▼ a존바튼 교수의 세미나
(나) ▼ a아시아문화학술대회
(다) ▼ a평창동계올림픽 ▼ n(제23회 : ▼ d2018 : ▼ c평창, 한국).
▼ e조직위원회

① 110
② 111
③ 130
④ 15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세미나·학술대회·올림픽은 모두 **회의명 표목**으로 처리하므로 표시기호 111을 쓴다. (다)의 조직위원회도 회의명 아래에 기술된 하위단위이다.

공통 해설

KORMARC 전거통제용에서 **111은 '표목 - 회의명'**을 나타낸다. 회의명 표목에는 세미나·학술대회뿐 아니라 올림픽과 같은 행사명도 포함되며, 회의명 아래에 하위단위를 덧붙인 표목도 이 필드에 기술한다.

(가)는 개인명 '존바튼'이 포함되어 있어도 전체 표목은 세미나명이고, (나)는 학술대회명이다. (다)는 '평창동계올림픽'을 회의명으로 삼고 회차·일자·장소를 부기한 뒤, 식별기호 e에 하위단위인 '조직위원회'를 기술한 것이다. '조직위원회'라는 말만 보고 단체명 표목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회의명 아래에 하위단위가 연결된 구조**로 판단한다. 따라서 세 표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시기호는 111이다.

NoteBase

문 8. KCR 제4판을 적용하여 KORMARC 형식(통합서지용, 2023)으로 레코드를 작성할 때, 녹음자료의 표제와 책임표시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지시기호, 띄어쓰기, 줄바꿈은 고려하지 않음)

① 245 00 ▼a고사소리▼h[녹음자료] = ▼xKorean traditional music Kosasori

② 245 00 ▼a고사소리 = ▼xKorean traditional music Kosasori▼h[녹음자료]

③ 245 00 ▼a고사소리▼h(녹음자료) : ▼xKorean traditional music Kosasori

④ 245 00 ▼a고사소리 : ▼xKorean traditional music Kosasori▼h(녹음자료)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자료유형표시 '[녹음자료]'는 **본표제 뒤, 대등표제 앞**에 둔다. 대등표제 앞에는 **등호(=)**를 사용하므로 '고사소리[녹음자료] = Korean traditional music Kosasori'의 형식으로 기술한다.

공통 해설

245 필드에서 ▼a는 본표제, ▼h는 자료유형표시, ▼x는 대등표제를 나타낸다. 대등표제는 본표제와 다른 언어나 문자로 된 표제이다. 이 문항에서는 '고사소리'가 본표제이고, 'Korean traditional music Kosasori'가 대등표제이다.

본표제에 자료유형표시와 대등표제가 이어지는 기술 형식은 '▼a본표제▼h[자료유형표시] = ▼x대등표제'이다. 자료유형표시는 **각괄호([ ])로 묶어 본표제 뒤, 대등표제 앞**에 놓고, 대등표제 앞에는 등호(=)를 붙인다. 따라서 이 자료는 '245 00 ▼a고사소리▼h[녹음자료] = ▼xKorean traditional music Kosasori'로 기술한다.

이 형식에 따라 '[녹음자료]'를 대등표제 뒤로 옮겨서는 안 되며, 자료유형표시의 각괄호를 원괄호로 바꾸어서도 안 된다. 또한 대등표제를 연결하는 등호를 쌍점(:)으로 바꿀 수 없다. 쌍점은 표제를 보완하거나 설명하는 '표제 관련 정보'를 앞세울 때 사용하는 구두점이다.

NoteBase

문 9. 더블린 코어(Dublin Core)에서 'W3CDTF'라는 인코딩 스킴(encoding scheme)을 적용할 수 있는 요소는?

① date
② type
③ language
④ identifier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W3CDTF는 **날짜와 시간의 표기 형식**을 정하는 인코딩 스킴이다. 따라서 자원의 생성·발행 등과 관련된 시점을 기록하는 **date** 요소에 적용한다.

핵심 풀이

W3CDTF(W3C Date and Time Formats)는 ISO 8601에 기반하여 날짜와 시간을 표현하는 규칙이다. 더블린 코어의 date는 자원의 생애주기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된 시점이나 기간을 기록하는 요소이므로 W3CDTF를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발행일을 '2024-03-15'로 기록하면, date는 **무엇을 기록하는지**를 나타내고 W3CDTF는 그 날짜 값을 **어떤 형식으로 적는지**를 정한다.

type은 자원의 성격이나 장르, language는 자원의 언어, identifier는 주어진 맥락에서 자원을 명확하게 식별하는 참조를 기록한다. 이들은 날짜를 기록하는 요소가 아니므로, 날짜·시간 표기 규칙인 W3CDTF와 연결되는 것은 date이다.

NoteBase

문 10.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전 세계의 작가, 연구자, 실연자 등의 공적 신원(public identity)에 대한 식별과 관리를 목적으로 2012년에 제정한 국제표준은?

① ISBD

② ISMN

③ ISNI

④ ISSN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ISNI(국제표준이름식별자)는 작가·연구자·실연자 등이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공적 신원**을 식별한다. 이 식별체계는 2012년 ISO 27729로 제정되었다.

개념 구분

ISNI: International Standard Name Identifier의 약자로, 작가·연구자·실연자 등 창작 활동에 참여하는 주체의 **공적 신원**을 식별하는 국제표준이름식별자이다. 공적 신원은 그 주체가 대외적으로 활동할 때 사용하는 신원을 뜻한다. 이름이 같아 혼동될 수 있는 주체를 구별하는 데 쓰이며, 2012년 ISO 27729로 제정되었다.

ISBD: 국제표준서지기술로, 도서관 자료의 **서지정보를 기술하는 기준**이다. 작가 등의 공적 신원에 식별자를 부여하는 체계와 구별된다.

ISMN: 국제표준음악번호로, **악보 출판물의 판**을 식별한다. 악보를 만든 사람이나 연주자의 공적 신원을 식별하는 번호가 아니다.

ISSN: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로, 신문·잡지·학술지 등 **계속자료**를 식별한다. 그 자료에 글을 쓴 작가나 연구자의 공적 신원을 식별하는 번호와는 대상이 다르다.

NoteBase

문 11. 도서기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저자기호법은 저자(일부 서명)를 2차 배가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동일 저자의 여러 저작을 군집화 및 개별화하기가 용이하다.
ㄴ. 연대순 기호법은 수입순 기호법보다 신착 도서를 배가하기 위해 기존 도서의 서가 배치를 바꿀 필요성이 적다.
ㄷ. 수입순 기호법은 수입된 연도를 기호화하므로 그 순서가 분명하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저자기호법은 같은 분류기호 안에서 **저자별로 저작을 모으고 개별 저작을 구별**할 수 있게 한다. 저자를 배열 기준으로 삼으므로 같은 저자의 여러 저작을 함께 찾기 쉽다.

보기별 해설

ㄱ. O: 도서기호는 동일한 분류기호를 가진 자료들을 구별하고 그 안에서 배열 순서를 정하는 기호이다. 저자기호법은 분류기호 다음의 **2차 배가 기준을 저자명**으로 삼고, 일부 자료는 서명을 기준으로 기호화한다. 같은 분류기호 안에서 동일 저자의 저작을 모으고, 서명 등에 따른 구분을 더하여 개별 저작도 식별할 수 있다.

ㄴ. X: 연대순 기호법은 **자료의 발행연도**를 기준으로 배열한다. 새로 입수한 책이라도 발행연도가 기존 책들 사이에 해당하면 중간에 꽂을 자리를 마련해야 하므로 기존 도서를 옮길 수 있다. 반면 수입순 기호법은 같은 분류기호 안에서 입수된 순서대로 번호를 붙여 뒤에 추가하므로 기존 도서의 배치를 바꿀 필요가 적다. 따라서 보기의 비교는 반대이다.

ㄷ. X: 수입순 기호법은 수입된 연도 자체가 아니라 **도서관에 입수된 순서**를 기호화한다. 저자나 발행연도와 관계없이 입수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연도를 기준으로 삼는 연대순 기호법도 수입연도가 아닌 발행연도를 기호화하므로 두 기준을 구별해야 한다.

옳은 보기는 ㄱ만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선택지는 ①이다.

NoteBase

문 12. KDC 제6판에 제시된 원작과 그 관련 저작의 분류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설을 희곡화한 것은 소설 아래에 분류한다.

② 원작의 해설서는 원작과 같은 곳에 분류한다.

③ 어학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대역서(對譯書)는 원작과 같은 곳에 분류한다.

④ 특정 목적을 갖고 원작의 일부를 발췌하여 별도로 간행한 발췌본은 원작과 같은 곳에 분류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원작의 해설서는 원작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돕는 관련 저작이므로 **원작과 같은 곳에 분류**한다. 원작을 바탕으로 했더라도 문학 형식이 바뀌거나 별도의 학습·발췌 목적이 있으면 그 형식이나 목적에 따른 분류 기준을 적용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소설을 희곡화하면 문학 형식이 소설에서 희곡으로 바뀐다. 이러한 개작은 **바뀐 문학 형식**에 따라 분류하므로 소설 아래가 아니라 희곡 아래에 분류한다.

② O: 원작의 해설서는 원작의 내용과 의미를 설명하는 저작이다. 원작 자체를 이해하기 위한 관련 저작이므로 **원작과 같은 곳**에 분류한다.

③ X: 어학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대역서는 원문과 번역문을 대조하며 언어를 익히는 자료이다. 이 경우에는 원작의 주제에 따르지 않고 **학습하려는 언어의 독본**에 분류한다.

④ X: 특정 목적을 가지고 원작의 일부를 발췌하여 별도로 간행한 자료는 **발췌 목적에 해당하는 주제**에 분류한다. 원작에서 가져온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원작과 같은 곳에 분류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13. DDC 제23판의 본표와 보조표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를 적용한 『Political conditions in the 20th century』의 분류기호로 옳은 것은?

320 Political Science
.09 History, geographic treatment, biography
Do not use for political situation and conditions; class in 320.9
.9 Political situation and conditions
.9001-.9008 Standard subdivisions
[.9009] History, geographic treatment, biography
Do not use for history; class in 320.901-320.905. Do not use for geographic treatment and biography; class in 320.91-320.99
.901-.905 History
Add to base number 320.9 notation 01-05 from Table 2
.91-.99 Geographic treatment and biography
Add to base number 320.9 notation 1-9 from Table 2

Table 1
-0901-0905 Historical periods
-0904 20th century, 1900-1999

Table 2
-01-05 Historical periods
Add to base number -0 the numbers following -090 in notation 0901-0905 from Table 1

① 320.94

② 320.904

③ 320.0904

④ 320.90904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정치 상황 및 정세'는 본표의 320.9에 분류하며, 시대 구분은 본표 지시에 따라 **보조표 2의 기호**를 붙인다.
20세기의 보조표 2 기호는 04이므로 분류기호는 **320.904**가 된다.

NoteBase

공통 해설

『Political conditions in the 20th century』는 '20세기의 정치 상황 및 정세'를 다룬다. 제시된 본표에서 정치 상황 및 정세는 320.9에 해당한다. 320.09에는 정치 상황 및 정세에 사용하지 말고 320.9에 분류하라는 지시가 있으므로, 시대를 다룬다는 이유만으로 320.09를 적용하지 않는다.

본표의 320.901–320.905에는 **기본기호 320.9에 보조표 2의 01–05를 붙인다**는 합성 지시가 있다. 보조표 2의 시대 구분은 보조표 1의 -0901–0905에서 -090 뒤의 숫자를 가져와 -0에 붙여 만든다. 보조표 1에서 20세기는 -0904이므로, -090 뒤의 숫자 4를 -0에 붙인 보조표 2 기호는 -04이다.

따라서 기본기호 320.9 뒤에 04를 이어 붙인 분류기호는 320.904이다. 이때 **04의 0을 생략하지 않으며**, 보조표 1의 0904 전체를 직접 붙이지 않는다. 기본기호와 부가할 기호를 모두 본표의 합성 지시에 맞춰야 한다.

NoteBase

문 14.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를 KORMARC 형식(전거통제용, 2023)으로 변환할 때, ㉮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KORMARC 필드
독도(한국)[獨島]	→	㉲
동의어(㉮) 가지도(한국)[可支島]	→	451
영어(ENG) Dok-do(Korea)	→	451
상위어(㉯) 섬(지형)[島]	→	550
관련어(㉰) 울릉도[鬱陵島]	→	551

① ㉮ - USE

② ㉯ - BT

③ ㉰ - RT

④ ㉲ - 151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에는 **UF**가 들어간다. 우선어 '독도(한국)' 아래에 비우선어인 '가지도(한국)'를 제시한 것이며, USE는 반대로 **비우선어에서 우선어로 안내**할 때 쓰는 기호이다.

NoteBase

빈칸별 해설

㉮ UF: '독도(한국)'가 채택된 우선어이고, 그 아래의 동의어 '가지도(한국)'는 비우선어이다. 우선어 항목에서 비우선어를 제시할 때는 **UF(Used For)**를 쓴다. 반대로 '가지도(한국)' 항목에서 '독도(한국)'를 사용하도록 안내할 때는 USE를 쓴다. KORMARC에서는 이러한 비채택 지명을 451(보라부출 - 지명)에 기술한다. 그림의 영어 이형인 'Dok-do(Korea)'도 451에 대응한다.

㉯ BT: '섬(지형)'은 독도가 속하는 더 넓은 개념이므로 상위어를 나타내는 **BT(Broader Term)**에 해당한다. '독도'는 특정 지명이지만 '섬'은 지형의 종류를 나타내는 일반주제명이다. 따라서 상위어 '섬(지형)'의 도보라부출에는 550(도보라부출 - 일반주제명)을 쓴다.

㉰ RT: 그림은 '울릉도'를 독도의 동의어나 상위어가 아닌 관련어로 제시한다. 이러한 연관관계는 **RT(Related Term)**로 표시한다. 관련어 자체가 지명이므로 KORMARC에서는 551(도보라부출 - 지명)에 기술한다.

㉱ 151: 맨 위의 '독도(한국)'는 이 전거레코드의 기준이 되는 **채택 지명 표목**이므로 151(표목 - 지명)에 기술한다. 같은 지명이라도 기준 표목은 151, 비채택 이형은 451, 관련된 채택표목은 551로 구분한다.

따라서 ①의 '㉮ - USE'는 참조 방향을 바꾼 연결이며, '㉮ - UF'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15. KDC 제6판의 본표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를 적용한 분류기호로 옳은 것은?

472.85 조직생물학 .851 조직생리학 .854 조직학 인체조직학 → 511.405 ; 동물조직학 → 491.85 .858 조직병리학 491 일반 동물학 .8 조직, 세포, 분자 동물학 .85 조직동물학 491.851-.858은 472.851-.858과 같이 세분한다. 518.57 운동, 외피계 작용제 점착제, 도포제, 용해제, 지혈제, 응혈제, 탈모제 등을 포함한다. 519 한의학 .1 한의기초학 .77 체질의학 [.78] 민간요법 519.231에 분류한다.
표준구분표 -021 편람, 핸드북, 포켓북 -05 연속간행물

① 민간요법 - 519.78

② 탈모제 편람 - 518.57021

③ 동물 조직병리학 - 491.8558

④ 외피계 작용제 관련 연속간행물 - 518.5705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외피계 작용제는 518.57의 **표목에 제시된 주제**이므로 연속간행물을 나타내는 표준구분 -05를 붙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연속간행물의 분류기호는 **518.5705**가 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민간요법 항목의 [.78]만 보고 519.78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바로 아래에 '519.231에 분류한다'는 지시가 있으므로, 민간요법은 **519.231**에 분류한다.

② X: 탈모제는 518.57의 표목 자체가 아니라 '점착제, 도포제, 용해제, 지혈제, 응혈제, 탈모제 등을 포함한다'는 포함주에 열거된 세부 주제이다. 이처럼 **포함주에 열거된 주제에는 표준구분을 적용하지 않는다**. 편람을 나타내는 -021을 덧붙인 518.57021이 아니라, 518.57에 분류한다.

③ X: '491.851-.858은 472.851-.858과 같이 세분한다'는 지시에 따라 조직생물학의 세분 구조를 조직동물학에 대응시킨다. 조직병리학은 472.858이므로, 공통부분 472.85 뒤의 8을 491.85 뒤에 붙이면 **491.858**이 된다. 491.8558처럼 58을 덧붙이지 않는다.

④ O: 외피계 작용제는 518.57의 표목에 직접 제시된 주제이다. 포함주에만 열거된 탈모제와 달리 표준구분을 적용할 수 있다. 연속간행물을 나타내는 **표준구분 -05**를 518.57 뒤에 붙이므로, 외피계 작용제 관련 연속간행물은 518.5705에 분류한다.

NoteBase

문 16. KCR 제4판에서 자원의 책임표시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영상자료의 배우

② 화상자료의 화가

③ 녹음자료의 작곡자

④ 전자자료의 프로그램 설계자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KCR 제4판은 영상자료의 **배우를 책임표시 범위에서 제외**한다. 배우명은 필요한 경우 책임표시 사항이 아닌 **주기사항**에 기록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영상자료의 배우는 책임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KCR 제4판 7.1.6.1은 감독·연출자 등을 책임표시 대상으로 삼지만, **연기자나 배우는 제외**한다. 배우명을 기록하려면 7.7.3.6에 따라 주기사항에 기술할 수 있다. 즉, 자료 제작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책임표시 사항에 기재하는 것은 아니다.

② O: 화가는 그림의 예술적 내용을 창작한 사람이다. KCR 제4판 7.1.6.1은 화상자료와 영상자료의 책임표시 범위에 **화가**를 포함하므로, 화상자료의 화가는 책임표시 대상에 해당한다.

③ O: 작곡자는 녹음자료에 수록된 음악 작품을 창작한 사람이다. KCR 제4판 6.1.6.1은 **수록작품의 작곡자**를 책임표시 범위에 포함한다. 실제로 연주하거나 노래한 사람과 별개로, 음악 자체를 만든 책임을 표시하는 것이다.

④ O: 프로그램 설계자는 전자자료인 프로그램의 구조와 기능을 설계하는 역할을 한다. KCR 제4판 8.1.6.1은 제작자·프로그래머·개발자 등과 함께 **프로그램 설계자**를 전자자료의 책임표시 범위에 포함한다.

NoteBase

문 17. FRBR에서 저작(work)은 지적 혹은 예술적으로 독창성을 지닌 창작물이다. 기존 저작의 동일 저작으로 취급하는 것은?

① 초록

② 개정판 텍스트

③ 아동용으로 각색

④ 문학 형식이 변경된 개작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개정판 텍스트는 기존 저작의 내용을 수정하여 실현한 **동일 저작의 새로운 표현형**이다. 텍스트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새로운 저작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FRBR에서 저작은 독립적인 지적·예술적 창작물이고, 표현형은 그 저작을 텍스트나 소리 등으로 실현한 것이다. 기존 저작의 수정인지, 독립적인 창작 노력이 더해진 새로운 저작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① X: 초록은 원저작의 주요 내용을 선별하여 요약한 것으로, FRBR에서는 **새로운 저작**으로 취급한다. 원저작을 바탕으로 했더라도 동일 저작의 다른 표현형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② O: 개정판 텍스트는 기존 저작의 내용을 수정한 것이므로 **동일 저작의 새로운 표현형**으로 취급한다. 다만 수정이 상당한 독립적 지적·예술적 창작에 해당할 정도라면 새로운 저작으로 구별한다.

③ X: 아동용으로 각색한 것은 독자층에 맞추어 내용을 새롭게 구성하는 독립적인 창작 노력이 들어가므로 **새로운 저작**으로 취급한다. 기존 저작의 단순한 개정과 구별된다.

④ X: 문학 형식이 변경된 개작은 **새로운 저작**으로 취급한다. 예를 들어 소설을 희곡으로 바꾸는 것은 다른 문학 형식에 맞추어 새롭게 창작하는 것이므로 동일 저작의 표현형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NoteBase

문 18. KORMARC 형식(통합서지용, 2023)으로 작성한 두 저작에 관한 서지레코드의 일부이다. 틸렛(Tillett)이 정의한 서지적 관계유형 중 두 저작의 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단, 지시기호, 띄어쓰기, 줄바꿈은 고려하지 않음)

저작 A	저작 B
020 ▼a9780141991177 245 ▼aTyranny of merit :▼bwhat's become of the common good? /▼dMichael J. Sandel 260 ▼aNew York :▼bPenguin Books,▼c2020 700 ▼aSandel, Michael J.,▼d1953- 767 ▼t공정하다는 착각 :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z9791164136452	020 ▼a9791164136452 245 ▼a공정하다는 착각 :▼b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 /▼d마이클 샌델 지음 ;▼e함규진 옮김 260 ▼a서울 :▼b와이즈베리,▼c2020 700 ▼aSandel, Michael J.,▼d1953- 700 ▼a함규진,▼d1969- 765 ▼tTyranny of merit : what's become of the common good?▼z9780141991177

① 기술관계

② 대등관계

③ 파생관계

④ 딸림자료관계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저작 A의 767 필드와 저작 B의 765 필드는 두 자료가 **원서와 번역서**임을 보여 준다. 틸렛의 서지적 관계에서 원자료를 다른 언어로 번역한 자료와의 관계는 **파생관계**이다.

NoteBase

핵심 풀이

레코드의 단서: 저작 A의 767은 **번역저록**으로, 한국어 표제 '공정하다는 착각'과 저작 B의 ISBN을 담고 있다. 저작 B의 765는 **원저저록**으로, 영어 표제 'Tyranny of merit'와 저작 A의 ISBN을 담고 있다. B의 245에 있는 '마이클 샌델 지음; 함규진 옮김'도 A가 영어 원서이고 B가 그 한국어 번역서라는 판단을 뒷받침한다.

관계의 판정: 틸렛의 파생관계는 원자료를 바탕으로 번역·개정·축약 등 변형이 이루어진 자료와의 관계이다. B는 A를 **다른 언어로 번역한 자료**이므로, 두 자료는 파생관계에 해당한다.

대등관계와의 구분: 대등관계는 원자료와 그 복제물처럼 **내용과 표현을 그대로 유지**한 자료 사이의 관계이다. 번역서는 원서에 바탕을 두지만 언어적 표현이 달라지므로, 원서를 그대로 복제한 자료와 구별한다.

NoteBase

문 19. (가) ~ (라)의 AACR2 용어와 이에 대한 A ~ D의 RDA 용어를 옳게 짝지은 것은?

(가) 보라 참조(see reference)
(나) 통일표제(uniform title)
(다) 표목(heading)
(라) 도보라 참조(see also reference)
A. 이형접근점(variant access point)
B. 전거형접근점(authorized access point)
C. 관련 개체의 전거형접근점(authorized access point for related entity)
D. 우선표제(preferred title)

① (가) - A
② (나) - B
③ (다) - C
④ (라) - D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보라 참조는 같은 개체의 다른 명칭에서 채택된 명칭으로 안내하므로 **이형접근점**에 대응한다. 반면 도보라 참조는 다른 관련 개체로 연결하므로 **관련 개체의 전거형접근점**에 대응한다.

NoteBase

대응 관계 해설

(가) 보라 참조 → A. 이형접근점: 보라 참조는 채택하지 않은 명칭이나 다른 형태의 명칭으로 검색한 이용자를 채택된 표목으로 안내한다. RDA에서는 이러한 **같은 개체의 다른 명칭 형태**를 이형접근점으로 나타낸다.

(나) 통일표제 → D. 우선표제: 통일표제는 서로 다른 표제로 나타난 동일 저작을 하나로 모아 식별할 수 있도록 선정한 표제이다. RDA의 우선표제는 **저작을 식별하기 위해 선택한 표제**이며, 저작의 전거형접근점을 구성하는 바탕이 된다. 필요하면 다른 저작과 구별할 식별 요소를 더하므로, 우선표제와 전거형접근점 전체를 구별해야 한다.

(다) 표목 → B. 전거형접근점: 표목은 목록에서 자료를 검색하고 배열하는 기준이 되는 명칭이나 표제이다. 이 문항의 용어 대응에서 표목은 RDA의 전거형접근점에 해당한다. 전거형접근점은 개체를 대표하도록 **표준화하여 채택한 접근점**으로, 같은 개체를 나타내는 이형접근점과 구별된다.

(라) 도보라 참조 → C. 관련 개체의 전거형접근점: 도보라 참조는 한 채택 표목에서 관련된 다른 채택 표목도 찾아보도록 안내한다. 따라서 같은 개체의 명칭 변형을 나타내는 이형접근점이 아니라, **관련 개체를 대표하는 전거형접근점**에 대응한다.

전체 대응은 (가) - A, (나) - D, (다) - B, (라) - C이다. 제시된 짝 가운데 이 대응에 맞는 것은 ①의 '(가) - A'이다.

NoteBase

문 20. MODS로 작성된 레코드의 일부분이다. (가), (나)에 해당하는 KORMARC 형식(통합서지용, 2023)의 표시기호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subject authority="lcsh">
          <topic>social service</topic>
          <geographic>New York</geographic>
(가)      <temporal>1994-</temporal>
        </subject>
(나)  <classification authority="ddc" edition="23">361.3
        </classification>
```

① (가): 648, (나): 056
② (가): 648, (나): 082
③ (가): 654, (나): 056
④ (가): 654, (나): 082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MODS의 temporal은 주제의 **연대용어**에 대응하고, classification의 authority='ddc'는 **듀이십진분류기호**임을 나타낸다.

NoteBase

대응 관계 해설

(가) 648: subject 안의 temporal에 적힌 '1994-'는 자료가 다루는 주제의 시간적 범위이다. 따라서 밑줄 친 연대 정보에 대응하는 표시기호는 **648 '주제명부출표목–연대용어'**이다. 654는 패싯어휘집을 바탕으로 작성한 패싯 주제어를 기술하는 필드이므로, 연대용어에 대응하는 표시기호와 구별한다.

(나) 082: classification의 authority='ddc'는 적용한 분류체계가 듀이십진분류법(DDC)임을, edition='23'은 적용 판이 23판임을 나타낸다. 따라서 분류기호 '361.3'은 **082 '듀이십진분류기호'**에 대응한다. 056은 한국십진분류법(KDC)의 분류기호를 기술하는 필드이므로, 숫자의 형태가 같더라도 분류체계가 DDC이면 056을 선택하지 않는다.

(가) 648과 (나) 082의 조합은 ②에 해당한다.

NoteBase